

실용음악 전공자의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 방향

신혜승*

*여주대학 실용음악과

e-mail:muse220@yit.ac.kr

요 약

본 논문에서는 실용음악 전공자의 시창청음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용음악 전공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한 내부 환경 및 기존 교재에 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합교과적 학습을 지향하는 시창청음 프로그램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시창과 청음 수업의 연계가 가능한 워크북 개념의 통합 교재로 문제의 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다양한 악곡의 활용을 통한 동기 유발과 학습 효과의 증대를 지향하였다. 교과 내용의 단순성을 지양하고 섹션별 학습을 추구하며 문제지와 답지를 교재 내에 포함시킬 것과 청음 워크북의 정답 부분을 음원 녹음한 오디오 CD를 제작하여 반복적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개발 방향이다.

1. 서론

음악의 악보만을 보고도 그 음악의 느낌을 즉각적으로 그려 내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과 다양한 음악을 청각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은 전공을 불문하고 모든 음악관련 전공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실용음악 관련 음악대학교와 2(3)년제 실용음악과, 심지어 실용음악 관련 학원과 실용음악 특성화 교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창청음 교재들은 대부분 2, 30년 전의 대학교재와 동일하거나 고전음악 위주의 텍스트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음악의 제 요소들을 포괄하는 통합교과적 학습이라기보다 가창 위주의 학습에 머물러 있다. 기계적인 연습 교재들이 피아노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음악적 흥미를 갖게 하면서 음악의 제 요소들을 고루 학습할 수 있는 창의적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많은 시창 청음 학습 교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창 교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청음 교재의 경우, 문제와 답을 동시에 갖추고 그것을 실제 음향과 대조해 보는 워크북 개념의 교재가 많지 않으며, 답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음원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되기가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시창 청음 교재 개발을 위하여 먼저 시창청음 교육에 대한 내부 환경 분석을 전제로 하여 프로그램 개발 방향에 대해 제언 하고자 한다.

2.1. 내부 환경 분석

2009년 여주대학을 비롯한 3개 대학의 신입생 23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시창 청음 교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부의 환경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1)자신의 시창 청음 수준에 대해 다수의 학생들이 불만족을 나타냈는데 이는 기보법 등 음악 이론에 관한 기초지식의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며 각자의 전공에 따라 시창 청음 능력의 편차가 심하고(작곡이나 건반 전공 등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꾸준히 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의 수준차가 현저함) 많은 교재들이 교육과정대로 진행하기에는 지나치게 분량이 많거나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의 전공에 따라 수업 방식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2년제 대학의 경우 한 학급 내에 40명가량의 인원이 동시에 수업할 경우 편차가 심한 학생들 간에 학습 흥미의 저하는 물론 시창청음 능력의 하향평준화 현상도 일어난다.

(2)시창/청음 각각에 대해 청음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43%로 많았고 시창/청음 모두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37%로 나타났다. 청음 학습을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이유는 전공에 따라 다르지만 악보를 그리는데 익숙한 작곡 전공 학생을 제외하고는 악보를 직접 그리면서 공부하지 않고(복사기의 발달도 청음 능력의 저하에 한 원인이 된다) 초등학교 이후 중학교와 고등학교 음악교육에 있어서 청음보다는 가창 중심의 교육이 선행되었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청음 능력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화음(성부)이 35%로 가장 높았고 선율 34%, 리듬 부분이 30%로 나타났다. 이것은 음악 능력의 인지 발달 이론에서도 입증되는 바, 청소년기의 음악 인지 능력 발달 순서는 리듬-선율-화음의 순서로 진행되지만 실용음악 전공 학생들의 경우 다양한 화음의 뉘앙스를 구별하는 능력이 중요한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교재 개발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하였다.

2.2. 시장/청음 기존 교재 분석

- (1)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교재 사용유무에 대한 질문에 144명(36%이 교재를 사용했다고 응답했으며 90명(38%)의 학생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 (2) 어떤 교재를 사용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성천의 『시장과 청음』이 56%로 가장 많았고 편집교재가 24%라는 응답이 나왔다. 시중 서점에 다양한 교재가 유통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시장 교재는 여전히 오래된 교재를 선호하고 있고 강의하는 교수에 따라 기존 교재와 편집교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교재에 대한 만족도 질문에는 만족 이상을 응답한 사람이 36%, 불만족 이상을 응답한 학생이 41%로 나타나 새로운 교재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4) 교재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혼자서 청음 훈련이 가능한 음원 자료가 포함되지 않아 혼자 공부하기 불편하다가 97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재 내용이 단순하고 지루하여 흥미롭게 공부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이 83명으로 2위로 나타났다.
- (5) 음원자료(CD)를 교재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에 86%의 응답자가 포함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으며, CD 포함이 학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시장 따로 청음 따로 교재를 분리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분리에 찬성하는 학생이 28명, 분리반대 40%, 아무 상관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3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생들이 시장/청음을 분리할 경우 교재비용등에 대한 부담감등이 응답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7) 현재 교재에 포함된 음악 대부분이 정통 클래식 음악이거나 학생들이 귀에 익숙하지 않은 창작곡인

점을 감안하여 교재에 대중가요, 영화음악, 재즈, 팝송을 이용한 선곡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학생들의 75%가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실용음악 전공자에 필요한 선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8) 온라인상의 시장 청음 교육 사이트가 생길 경우 이용할 의사를 묻는 질문에 203명(83%)이 교육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 (9)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40명의 경우 컴퓨터가 불편하다고 13명이 응답하였고, 독학이 낫다가 6명, 가독력 문제 2명 등의 응답이 나타났다.

3. 프로그램 개발 방향

3.1. 프로그램 내용의 다양화

실용음악과의 전공은 보컬과 작곡, 악기 연주, 음향 엔지니어, 미디어 프로그래머 등 다양하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따라 부르거나 단순한 듣고 적기 학습만으로는 실제 음악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선율과 가창 위주의 학습을 지양하고 리듬-보표읽기-음정-음계-화음-선율 등 음악의 제 요소들을 다양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또한 각 부분별 연습 외에도, 이미 외우고 있는 유명한 선율을 악보에 옮겨서 적는 연습과 새로 학습한 선율을 외우는 과정도 포함 시킴으로써 청각 훈련과 시각 훈련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학습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

3.2. 시장과 청음 부분의 연계 및 통합

상호 연계 및 유기적 통합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즉 각 장마다 시장 부분에서 학습한 내용을 청음 문제에서 확인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악보 이해 능력은 습득 즉시 청각 이해 능력과 연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장과 청음 부분을 한 chapter 내에 포괄하고 청음 학습 부분은 워크북으로 만들어 정답도 함께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실제 수업에서 교사는 정답과는 별도로 즉흥적으로 다른 답을 제시함으로써 교사와 학생 모두 수업에의 몰입의 강도를 높일 수 있으며 정답은 별도로 음원 형태로 녹음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연습할 수 있어야 한다.

3.3. 음악의 제 요소 학습과 난이도를 고려한 점진적 학습 방법론

(1) 리듬 : 교사가 연주하는 리듬을 듣고 바로 악보에 적지 않고 구음이나 손뼉 치기나 리듬 악기로 받아서 연주하도록 한다. 두 마디 단위의 규칙적인 리듬 연습부터 출발하여 호흡이 긴 네 마디 이상의 리듬 청음 학습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능력을 증진시키게 된다.

리듬 시창은 마디 없이 기본 박(beat)만 제시하고 읽는 연습과 마디가 있는 규칙적인 리듬 시창을 병행하도록 한다. 단순한 홑박자부터 겹박자, 혼합 박자의 순서로 진행한다. 각 장의 리듬 학습에서 단선 리듬 연습과 2성부 리듬 연습을 병행하되 곳곳에 빈칸을 만들어 학생들이 주어진 박자 내에서 즉흥 연주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리듬 학습에서도 싱코페이션이나 변박자, 혼합 박자의 연습을 위해 문헌의 잘 알려진 레퍼토리의 예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2) 보표 읽기(clef reading) : 보표읽기 학습은 리듬을 수반한 선율을 주되 음고(pitch) 없이 신속하게 계이름으로 읽는 연습이다. 선율 내에 수차례 음자리표를 이동하도록 하는 방법과 큰 보표에 음폭이 넓게 선율을 배치하여 낮은음자리표와 높은음자리표로 읽는 연습을 유도한다. 보표읽기 학습에서는 가온음자리표에서 현재도 사용하고 있는 알토 음자리표와 테너 음자리표를 읽는 문제도 학습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좋다.

(3) 음정 : 화음과 함께 학생들이 특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음정 연습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각 음정을 연습할 때 학생들이 피아노의 건반과 오선악보를 동시에 상상하며 시창 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좁은 음정에서 넓은 음정으로 진행하되 반드시 음정의 넓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음정 연습은 두 음간의 상대적 거리를 인식하는 것이므로 학습이 기계적 학습이 되지 않기 위해 두 마디 이내의 간단한 기존 악곡의 예를 함께 연습하도록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4) 음계

대부분 시창 교재들이 장조와 단조 조성으로 된 악곡 학습에 치중하는데, 이는 세계의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경험하는데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민요에

자주 사용되는 5음 음계 학습을 포함하여 장음계, 단음계(natural, harmonic, melodic), whole tone scale, blues scale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반음과 온음의 순서에 의해서 독특한 음계의 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반복 학습을 한다. 음계 연습은 상행과 하행 음계를 훈련하면서 임의로 진행되는 음렬 시창과 청음 훈련을 통해 조성의 느낌을 이해하도록 한다. 이 부분에서 청음 교재에는 첫 음만 주고 교사가 연주하는 상행, 하행 음계를 받아 적게 하는 부분과 6~8개의 음렬을 주어진 조성 내에서 듣는 훈련을 한다.

(5) 화음 : 화음시창 및 청음은 장, 단, 증, 감 등 3화음 학습에서 출발하여 7화음 이상의 학습으로 확대한다. 화음의 연습 방법은 근음에서 3도 간격으로 진행되는 화음을 분산화음의 형태로 부르거나 듣는 방법과 동시에 울리는 화음의 느낌을 비교하는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 자리바꿈 학습으로 진행한다. 이 경우에 교사는 근음 위치에서 충분히 화음의 차이를 학습한 다음 3음이나 5음에서 나머지 화음의 구성음을 노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이 연습과 함께 C장조에서의 주요 3화음 과 부3화음을 구별하는 훈련을 통해 조성 내에서의 화성의 기능을 귀로 이해하도록 하는 연습도 병행하는 것이 좋다.

(6) 선율 : 선율시창과 청음은 이제까지 그 장에서 학습한 모든 음악 요소 학습의 통합이 되도록 다양한 악곡을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선행 학습한 리듬, 음정, 음계, 화음 등의 학습 내용이 선율 부분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선율 하단에 화음 기호를 병기해 줌으로써 스스로 코드를 반주하며 노래하거나 기호가 제시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즉흥적으로 화음 붙이기를 통한 창의적 시창 학습도 가능하다.

또한 다성 음악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선율과 리듬 반주의 2성부 학습, 2성부 이상의 선율 학습, 반주부를 수반한 가창 학습, 캐논 학습 등이 유용하다.

선율 학습 부분에서 단순한 리듬 동기를 제시하고 4개에서 6개 정도의 음을 제시하여 즉흥적으로 선율을 지어 노래하는 연습 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음악의 창조적 과정을 경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4. 결론

시창청음의 궁극적 목적은 ‘악보보고 노래하기’나 ‘음악을 듣고 적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전공 능력과의 연계성과 음악 이론과의 통합적인 상호 작용 속에서 시창 청음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음악적 능력이 향상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음악 요소들에의 접근은 물론 셈여림, 프레이징과 템포 조절 능력, 즉흥성의 학습을 통해 음악적 해석 능력을 기르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실용음악과를 지망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 악보를 읽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음악 이론을 기반으로 한 통합 학습의 방향으로 교재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악보만을 제시하는 교재가 아니라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가능하고 시창과 청음의 유기적 학습을 도모하는 워크북 개념의 프로그램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참고문헌

- [1] 김일권, 윤경미, 『음악성이 향상되는 청음 1&2』, 현대음악출판사, 2002
- [2] 장기범 외, 『시창과 청음·창작의 세계』, 태림출판사, 2001
- [3] 허지연, 『눈으로 듣고 귀로 본다』, 현대음악출판사, 2001
- [4] 이은주, 『시창과 청음』, 학문사, 1998
- [5] John R. Stevenson, 『Rhythm and Pitch ; An Integrated Approach To Sight Singing』, Prentice-Hall Inc. 1986
- [6] Bruce Benward, Teacher's Dictation Manuel in Ear Training, Sight Singing Complete, 3rd ed. 1980
- [7] Georges Dandelot, 『Manuel Pratique』, Max Eshig, 1978
- [8] 신혜승, 『새로운 스타일의 시창과 청음』, 예술, 2004